**KG 모빌리티, 2023년 16년 만에 흑자 전환**

* 내수, 수출 포함 총 11만 6,099대 판매, 매출 3조 7,80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
* 수출은 52,754대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실적 기록, 2022년 대비 16.5% 증가
* 신차 론칭 확대와 신시장 개척, KGM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전략 강화 통해 판매 상승세와 함께 흑자 규모 더욱 늘려 나갈 것

**[2024년 2월 22일]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http://www.smotor.com), 이하 KGM)는 지난 2023년에 ▲판매 11만 6,099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3조 7,80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하며 내부 경영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구조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순수 영업실적만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2023년 판매는 내수 6만 3,345대, 수출 5만 2,754대 등 총 11만 6,099대로 2022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매출은 제품믹스 등의 개선 효과로 2022년 대비 10.4% 증가한 3조 7,8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토레스가 내수와 수출 포함 총 4만 4,798대로 판매되며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특히 수출은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지난 2014년(72,011대) 이후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16.5%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판매 상승세를 이끌었다.

손익 역시 수출 물량 증가세와 함께 원가구조 개선과 판매 관리비 최적화 등 내부체질 개선이 효과를 보이며 영업이익 50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 등 흑자를 기록했다.

KGM은 이러한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 확대를 위해 올해를 백년대계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J120(토레스 쿠페)을 포함한 전기 픽업트럭 등 각종 신차 개발은 물론 신시장 개척과 KD 사업 강화 등 글로벌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KGM 정용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토레스와 상품 개선 모델의 글로벌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한지 1년 여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며 “올해는 이러한 판매 상승세와 함께 흑자규모를 더욱 늘리기 위해 내수 시장 대응 강화는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신차 론칭 확대와 신시장 개척, KGM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더욱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클립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
| --- |
|  |

**※ 미디어 문의**

KG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 / (fax) 02-3469-2287

▶ 곽용섭 실장 (02-3469-2050 / 010-3583-9416  / yongsub.kwak@smotor.com)

▶ 차기웅 팀장 (02-3469-2052 / 010-8998-3936 / kiwoong.cha@smotor.com)

▶ 최진웅 부장 (02-3469-2051 / 010-4570-0751 / jinwoung.choi@smotor.com)